

# “강진의 음유시인 될래요”

### 강진시문학파기념관, 2023 영랑시인학교 입학식 가져 만 60세 이상 어르신 50여명 11월까지 총 39회 교육



‘2023년 영랑시인학교 개강식’ 행사 종료 후 운영총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과 이석우 시문학파기념관장, 유현, 이수희강사를 비롯한 50여명의 시인학교 교육자들 단체사진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2023년 영랑시인학교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인 양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문학파기념관에 따르면 영랑시인학교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인 영랑생가를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며,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미 선발된 만 60세 이상 어르신 50여명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한차례(월요일) 총 39회에 걸쳐 시에

대한 이론과 실기(시 낭송) 교육을 받게 된다.

오전 11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된 입학식은 유경숙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 소개와 수강생 대표 김학나 씨의 시 낭송, 강사 소개, 하모니카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시와 함께 떠나는 행복여행’을 주제로 한 윤영훈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의 특별강연과 흥겨운 기타 연주로 마무리됐다.

실제로 첫 교육이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70% 정도가 시인으로 등단했을 만큼, 참여자들의 시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뜨겁다. 강사진과 교육 커리큘럼 또한 알차다.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인 유현 시조시인과 ‘시선 전남광주지부회’ 부회장이 이수희 시인이 강사로 나서, 참여자들을 강진의 풍류가객이자 음유시인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석우 시문학파기념관장은 “영랑의 고향이자 시인의 고향 강진에서, 인문학적 교양을 토대로 삶과 예술을 하나로 묶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영랑생가의 문화재 가치를 확산시키고, 군민들에게는 예술적 감수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상반기 목공예기능인 교육 ‘시선 집중’

### 레진공예 특강과목 운영 등 4과목 60여명 모집

장흥군이 2023년 상반기 목공예기능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교육은 생활목공 초급, 서각 초급, 레진공예 특강 1-2기, 우드버닝(인두화) 등 4과목으로 운영된다.

오는 9일까지 총 6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교육생에게는 전통공구, 장비, 수강료 등이 지원된다.

2023년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9과목, 총 130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목공, 서각, 우드카빙, 우드버닝(낙화),

목선반 등 다양한 목공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인기 있는 레진공예 특강과목을 더해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목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했다.

장흥군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목공교육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도전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드랜드팀 방문 또는 전화문의(061-863-8430)하면 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 진도군, 진도개 심사원

### 양성교육 개설·운영

### 24일까지 접수...혈통 보존·관리 위해

진도군이 진도개 혈통 보존·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한 진도개 심사원 양성교육을 개설·운영한다.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개 교육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학력나 나이, 성별에 제한 없이 진도개를 사랑하는 진도군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4일까지 진도개축산과 혈통관리팀(540-6337)에 방문, 우편·팩스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진도개는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과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 및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모권이 확인된 강아지가 6개월령 이상 성견의 체형이 되었을 때 심사원이 표준체형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심사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능한 전문 심사원을 배출하고 심사원의 자질향상과 함께 진도개 양육농가에 선진 반려견 문화를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성용 기자

## 해남군,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속도’

###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솔라시도 기업도시내 2025년 개관 예정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사업편성 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부·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절차로, 이번 심사 통과로 예산편성이 가능해 지는 등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환경부와 전라남도, 해남군이 총사업비 425억원을 들여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5만 7,500㎡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 2024년 실시설계 완료 및 2025년 준공·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교육센터로서 연간 5만명 규모의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시설과 생활 속 에너지 저감 방안, 각종 환경 문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해남군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에 이어 탄소중립 에듀센터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로 부상하고 있다.

센터가 들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국내 최대 발전량 및 세계 최대 저장량을 보유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159만여㎡(48만여평)면적, 98MW 규모의 재생에너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의 일환인 전남형 스마트블루 시티 개발도 정원도시, 태양에너지도시, 스마트도시의 도시비전을 가지고, 일자리·관광·주거·교육·의료 등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산업단지 전체의 전기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전용사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복합문화공간인 50여만㎡(16만평) 규모 산이정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기업도시의 도시비전에 부합한 역점사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생일날 완도 생일도에서 특별한 추억 만드세요”

### 생일날 방문하면 전광관 이벤트와 특산물 미역 제공

“가고 싶은 섬”인 전남 완도 생일도에서는 섬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생일날 생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날마다 생일’이라는 주제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날마다 생일’ 이벤트는 주민등록증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날에 생일도를 방문하면 전광관 축하 이벤트와 더불어 생일도 특산물인 미역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현재까지 30명이 생일 축하와 미역을 받았으며, 올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벤트와 더불어 생일도의 관문인 서성항에 도착하면 생일도의 랜드마크인 국내 최대 케이프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생일도는 산세의 아름다움에 취해 구름도 머문다는 백운산과 상서로운 학이 머문다는 학서암, 금빛 모래밭을 감싸 안은 해송과 동백 숲이 아름다운 금곡해수욕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 섬’ 중에서도 특별한 날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가족 섬’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생일날 찾으면 좋지만 언제든 찾아가도 힐링하기에 좋은 섬이다.

서말산 생일면장은 “생일도의 특징을 살린 소소하지만 다양한 이벤트가 활성화되어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